



재해·기상 동향과 전망

5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I.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기상전망

1. 5월 기상전망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후반에는 흐린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낮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날씨 전망

-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중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하순)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기온 및 강수량

구 분	기 온	강 수 량
5월 상순	평년(15~18℃)보다 낮겠음	평년(23~73mm)과 비슷하겠음
5월 중순	평년(15~19℃)보다 높겠음	평년(24~66mm)보다 적겠음
5월 하순	평년(17~20℃)보다 낮겠음	평년(20~51mm)과 비슷하겠음

2. 3개월 기상전망

5월에는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6월에는 일시적인 고온현상과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7월에는 흐린 날이 많고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 날씨 전망

- (5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후반에는 흐린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음.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7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흐린 날이 많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기온 및 강수량

구 분	기 온	강 수 량
5월	평년(16~19℃)보다 낮겠음	평년(70~190mm)보다 적겠음
6월	평년(19~23℃)보다 높겠음	평년(106~268mm)보다 많겠음
7월	평년(23~26℃)과 비슷하겠음	평년(187~397mm)과 비슷하겠음

사회적 여건

5월은 어린이날 등 행사가 많고 놀이기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으로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달임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시기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놀이공원 등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 어린이날을 동반한 행사나 소풍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놀이시설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요인 증가
- ※ 5월 예정 주요 행사 :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5.5~5.8), 지구촌 나눔한마당(5.4~5.5), 연등회 연등축제(5.10~5.12), 부산가족축제(5.11) 등

• 산악 안전사고 등 발생 증가

- 따뜻한 날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인구 증가

- 석가탄신일(5.17) 등 주말·공휴일을 활용한 산행인구 급증
 - 산나물, 약초 채취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산악 안전사고 증가
 - 봄 축제등과 맞물려 음주 산행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 증가
- 본격적인 영농기로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 농기계 사용 증가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기계 사용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며, 야간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 빈도 높음
 - 본격적인 모내기철, 농사일 중간에 새참 등으로 술을 마신 뒤 농기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 증가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시작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위험 증대
 - 5.15일 이후 집중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돌발 홍수, 절개지 붕괴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II. 5월 자연재난 발생현황 분석

자연재난

최근 10년간('01~'11년) 대규모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시작되면서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기상상황 분석

- 최근 5년('08~'12년)간 월별 기상특보 발표 현황을 보면,
 - 5월은 특보 횟수가 388회로 10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기상특보가 적은 달로 나타남

【최근 5년('08 ~ '12년)간 연중 기상특보 발표현황 - 기상청】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상특보회수	8662	888	624	687	590	388	419	1,322	1,319	505	262	551	1,107

- 최근 5년('08~'12년)간 5월 중의 기상특보 발표현황 분석 결과,
 - 호우가 108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풍랑 98건(25.3%), 강풍 91건(23.5%), 건조 47건(12.1%), 황사 44건(11.3%)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08 ~ '12년)간 5월중 기상 특보 발표현황 - 기상청】

구분	합계	호우	강풍	풍랑	건조	황사
합계	388	108	91	98	47	44
2008	89	20	28	12	14	15
2009	58	25	13	11	9	-
2010	99	32	25	34	8	-
2011	122	27	23	31	12	29
2012	20	4	2	10	4	-

「2013년 강수량 분석(4.29일 현재)」

•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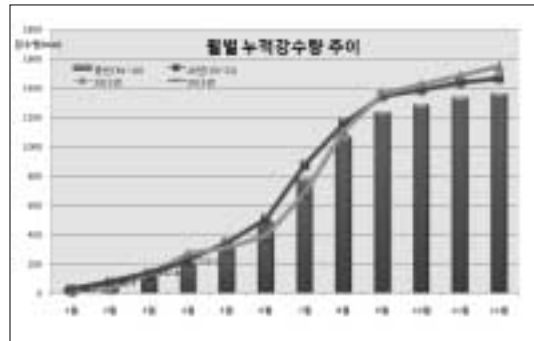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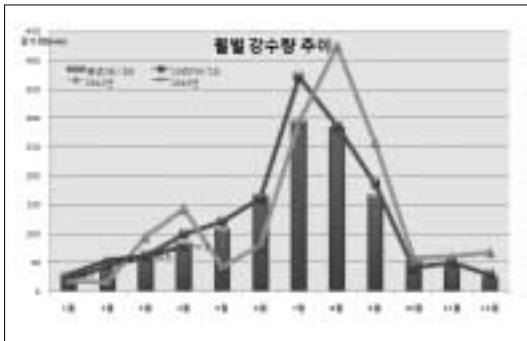
〈전 국〉 60개 지점 평균 강수량(단위 mm)

- (4월 평균 강수량) 77.3 [전년 142.7(0.5배), 평년 84.3(0.9배)]
- (1~4월 누적 강수량) 220.1 [전년 269.3 (0.8배), 평년 214.0(1.0배)]

〈지역별〉

- (4월 평균) 광주 53.4(평년 0.7배), 인천 49.8(평년 0.8배), 강원 59.1(평년 0.9배)
 - ※ 부산 135.7, 제주 103.7, 경남 92.1, 대전 86.7, 울산 86.5, 전북 81.8
- (1~4월 누적) 제주 283.9(평년 0.7배), 광주 198.9(평년0.9배), 울산 212.9(평년0.9배)
 - ※ 부산 298.5, 제주 283.9, 경남 257.3, 전남 256.3, 대전 239.9, 전북 217.8

• 전국 월별 · 지역별 강수량 현황



- 월별 강수량 현황

【최근 10년('02~'11)간 월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재해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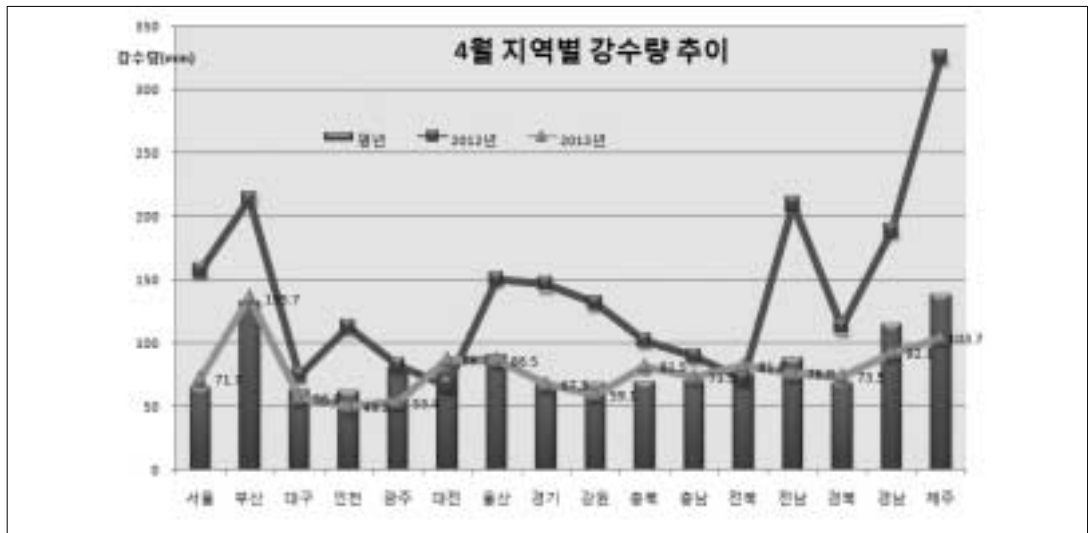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28.7	53.4	60.8	77.3	-	-	-	-	-	-	-	-
2012년	16.9	14.8	94.7	142.7	41.7	80.2	293.7	424.5	257.8	57.3	59.5	67.5
10년('03-'12)	21.4	43	61.8	98.9	120.6	161.3	370.7	286.2	186.2	40.8	50.2	28.9
평년('81-'10)	31.2	37.8	60.8	84.3	108.3	166.7	296.4	284.7	167.1	53.1	48.3	26.1

- 월별 누적강수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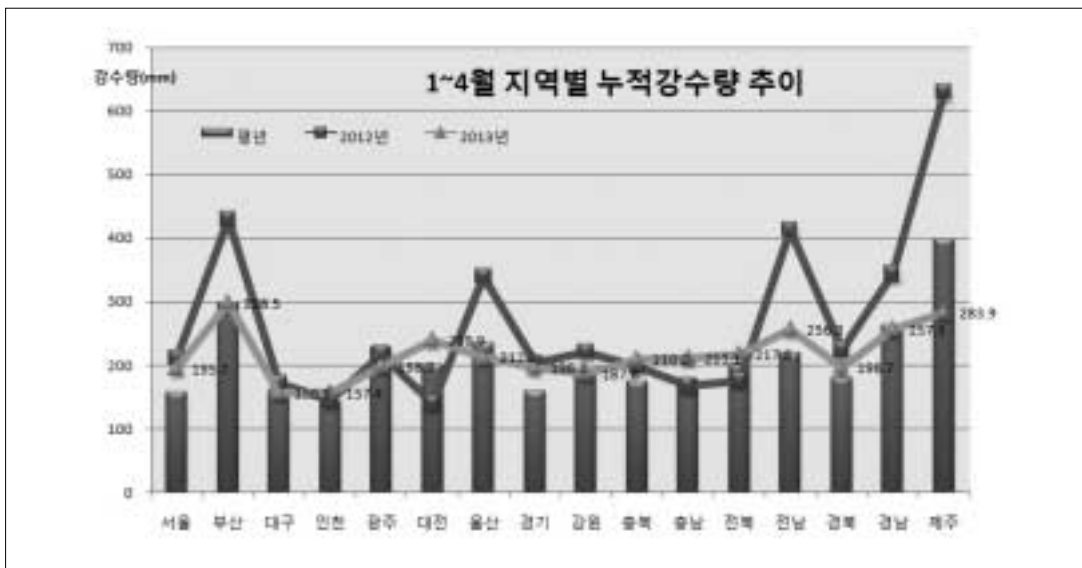
【최근 10년('02~'11)간 월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재해연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28.7	82.1	142.8	220.1	-	-	-	-	-	-	-	-
2012년	16.9	31.8	126.5	269.3	310.9	391.2	684.9	1109.4	1367.2	1424.5	1484	1551.5
10년('03-'12)	21.4	64.5	126.3	225.2	345.8	507.1	877.8	1163.9	1350.1	1390.9	1441.1	1470
평년('81-'10)	31.2	69	129.8	214	322.3	489	785.4	1070	1237.1	1290.3	1338.6	1364.7

• 지역별 4월 강수량 및 1~4월 누적강수량 현황



4월 강수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3년	71.7	135.7	56.8	49.8	53.4	86.7	86.5	67.3
2012년	157	213.8	74.4	113.1	82.5	66.2	150.5	146.2
평년('81-'10)	64.5	132.7	62.9	62.3	80.7	81.7	91.1	67.9
4월 강수량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59.1	81.5	73.3	81.8	76	73.5	92.1	103.7
2012년	131.6	102	89.8	71.9	209	112.2	188.4	325
평년('81-'10)	68.4	69.7	70.5	75.4	88.1	68.5	114.8	138.2



1~4월 누적강수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3년	195.7	298.5	156.9	157.4	198.9	239.9	212.9	196.1
2012년	211.9	429.3	171.7	144.6	216.7	139.7	339.9	203.7
평년('81-'10)	157.5	298	158.8	141.5	226.5	201.1	233.8	159.6
1~4월 누적강수량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187.6	210	211.1	217.8	256.3	196.7	257.3	283.9
2012년	220.9	197.9	167.2	176.2	413.4	224.1	343	628.8
평년('81-'10)	192.3	173.7	178.1	201.3	219	179.8	263.8	398.5

「5월 발생 자연재해 분석」

- 최근 10년('01~'11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138건으로 680명의 인명피해와 16조 5,82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이 중 5월에 2건의 자연재해로 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모두 강풍에 의한 시설피해로 분석됨

【 최근 10년('02~'11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월평균
건수	10	11	14	8	2	9	26	25	13	7	4	9	138	12
인명피해 (명)	-	-	1	-	-	8	177	307	161	12	-	14	680	57
재산피해 (억원)	452	539	7,701	176	9	2457	29,442	70,576	47,762	940	64	5,705	165,823	13,819

■ 강 풍

- 최근 10년('02~'11년)간 5월에는 풍랑피해는 없었으며 강풍 피해만 2회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9억 원으로 집계됨

【 최근 10년('02~'11년)간 월별 강풍·풍랑 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건수 (강풍/풍랑)	2 (0/2)	3 (1/2)	7 (1/6)	7 (5/2)	2 (2/0)	-	1 (1/0)	-	-	5 (2/3)	2 (1/1)	2 (1/1)	31 (14/17)
인명피해 (명)	-	-	1	-	-	-	-	-	-	11	-	-	12
재산피해 (억원)	110	120	411	148	9	-	42	-	-	127	49	72	1,089

• 최근 5월 강풍 사례

- ('06년)5.4~5.7일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에 호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침수 20ha를 포함 696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07년)5.11~5.14 강풍으로 경기지역 204백만원 재산피해 발생
- ⇒ 강풍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 대책 추진

■ 가 물

- 1~4월 누적 강수량은 220mm로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평년수준이며, 최근 2개월(3월~4월) 누적 강수량은 138mm로 평년의 95%임(4.29일 기준)



- 전국 저수지 저수율은 4.29일 기준 87%로서 평년 86%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저수율은 지난해 가뭄이 심했던 충남, 충북 지역이 각각 95%, 94%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는 77.5%로 가장 낮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지역별 저수율(4.25일 현재) - 농어촌공사 】

년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9일	87	93.2	92.4	94.2	94.9	82.1	82.2	88.7	86.7	77.5
4.28일	87.4	93.5	93.2	94.1	95.1	83.2	82.1	89	87	77.6
평년	86.1	91.1	90.8	92.2	89.9	83	84.5	85	83.9	77.1

- 따라서, 2개월 누적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로 판단했을 때 현재 가뭄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기상청에서는 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뭄판단기준(징후/발생/극심)

- (강 수 량)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70% / 50~70% / 50%이하)
- (농업용수) 저수지 저수율 평년대비(70% / 51~70%/50%이하)
발 토양수분(61~80%) / 41~60% / 40% 이하)
- (생활용수) 1개 시군구에서(1개 마을상수도 급수제한 / 전체 지방상수도 30~50% 감량 공급 / 전체 지방 상수도 50% 이상 감량 공급)

-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뭄은 2012년 가뭄으로 5~6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기·충남·전북 일부지역에서 가뭄발생
 -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추진(중대본 상황실 운영 소방방재청 등 7개부처, 6.22~7.5)
 - (농업) 8만ha 용수 공급(용수원개발 3,046개소, 양수기 등 18,935대, 인력 36,202명), 902억원 지원 및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 21만톤 비상공급
※ 902억원 : 국비 621억(농식품부 595, 특교세 26), 지방비 281억
 - (생활) 66개 지역 4,959명, 2,236톤 급수(급수차 195대, 인력 370명)
2001년에 발생한 가뭄은 3~5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유역이 평년과 대비하여 40% 수준도 미치지 못함
 - 특히, 가뭄은 경기, 강원 충청지방 등 중부지방에서 극심하여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은 평년의 19%~3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 2001년 모내기철 도별 강수량(3월1일~6월17일, 단위 mm) 】

지역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고
평년	308	293	263	277	276	292	382	270	410	404	
2001년	87.7	57	80	67	51	118	103	60	151	180	
평년대비 (%)	28	19	30	24	19	40	27	22	37	45	

-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가뭄 중 1968년의 경우 지속기간이 72일로 강우량은 122mm에 불과하였으며 7천억원의 피해 발생
 - '94년 가뭄은 '96년 봄까지 지속되었으며 49개 시·군의 약 36만명이 제한급수를 받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대책비로 4,827억원, 저수지 준설을 위해 922억원이 지원되었음
- 5월은 모내기 등으로 농업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가뭄 발생시 농농사 등에 큰 지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가뭄에 대비하여 관련시설 등을 확충 보강하고 가뭄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황 사

- 봄철 황사의 발생일수는 평년(5.2일)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봄철 전반에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평년('81~'10년) 5월 황사 발생 일수는 1.0일이며 최근 10년('03~'12년)간 5월에는 1.2일로 나타났으며 '11년의 경우 5월에 5.7일이나 발생하였음.

【 평년('81~'10) 및 최근 '10년('03~'12) 황사발생 평균값(단위:일) - 기상청 】

구분	3월	4월	5월	봄철	비고
평년('81~'10)	1.8	2.4	1.0	5.2	* 황사일수: 전국 18개 관측지점 평균
최근10년('03~'12)	2.5	1.7	1.2	5.4	"

※ 금년 3월 황사일수 18개 지점 평균은 1.4일이며, 4월에는 황사 발생 일수 없음(4.23일 현재)

- 최근 5월 황사피해 사례
 - 2010년 발생한 황사 중 최고 미세먼지 농도값은 5월 2일 흑산도에서 기록된 $1,025\mu\text{g}/\text{m}^3$ (시간평균)였으며, 지속시간은 82시간 15분으로 2002년 이후 5월 황사 사례 중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음

황사피해 유형

-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안질, 심혈관계 질환 유발
- 시정장애 초래로 육상, 해상 등 교통 운행 중단·지연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엔진 등 정밀전자, 기계제품의 불량률 증가
- 먼지바람으로 인한 도장작업 중단 등으로 인한 작업 소요일수 증가
- 비닐하우스 피복 작용으로 일사량이 감소하여 낙과율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
- 이용객 감소로 인한 백화점, 할인점, 레저,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매출 감소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휴업 또는 단축수업 초래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유관기관 간 황사 관측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Ⅲ. 주요 재난사례 분석

2012년 가뭄

■ 강수현황

-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평균 518mm로 평년대비 103% 수준
- 2012년 5.1~6.28일 강수량은 평년대비 32% 수준으로 극심 가뭄년도 강수량보다 146mm 부족
- ※ 경기, 충남, 전북지역은 평년대비 15~11% 수준

【 2013년 지역별 저수율(4.25일 현재) - 농어촌공사 】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mm)	81	31	80	75	43	53	73	83	106	226
평년(mm)	254	208	217	221	227	245	307	214	338	330
평년대비(%)	32	15	37	34	19	21	23	40	32	68

■ 가뭄피해 현황

- 강수량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저조로 경기, 충남,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면적 발생(최대 1천9백ha)
- 생활용수는 충북, 전북지역 일부 지하수를 활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최대 77개 지역 2,372세대 6,077명 비상급수 실시
- 공업용수는 국가산업단지는 공급에 지장이 없었으나 충남「대산공단」에 공급하는 대호지의 고갈로 아산호에서 긴급 지원

■ 가뭄대책 추진결과

【농업용수 공급】

- 가뭄지역 연 8만ha에 농업용수 공급(6/4일~6/29일)
 - 주민·공무원 등 인력 36,202명, 양수기 18,835대, 소방차 등 급수차량 3,162대 지원

- 장비 광역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착정장비 846대(국방부 21대, 농어촌공사 112대, 민간장비 713대)를 동원, 가뭄지역 관정 개발에 지원
- 가뭄대책비 총 902억원 확보
 - 중앙에서 국비 621억원(농식품부 국비 595억원, 행안부 특교세 26억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예산 281억원 확보
- 수도권(팔당댐)·충주(충주댐) 등 광역상수도 11개 관로를 통해 시흥 물왕·소래저수지 등에 총 21만톤의 농업용수 비상공급

【생활용수 공급】

- 제천시 등 66개 지역 1,931세대, 4,959명에게 소방차·급수차 195대, 인력 370명 동원, 2,236톤 운반 급수 조치(~7/4일)
- 11개 지역 441세대, 1,118명에게는 제한급수 실시(격일, 일 2회, 4~12시간)
- 장기적으로 급수난 해소를 위해 관정개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공급 등을 추진

【공업용수 공급】

- 광역상수도(아산호) → 광역상수도 관로를 통해 대산산업단지에 총 2백 4천만톤의 공업용수 비상공급(국토부, 수자원공사)

■ 문제점 및 대책

【상황관리분야(중대본)】

- 각 부처별 보고서식이 달라 지자체 업무혼선 및 가중
 -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 후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가뭄관련 보고서를 표준화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유도
- 가뭄상황 지속여부 등 판단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인 상황관리 애로
 - ⇒ 국가 가뭄재해 상황관리시스템 개발 구축·운영
 - ※ 저수지 저수량, 하천수위 등을 통해 취수가능량과 강수예보를 실시간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천수답 등을 가뭄상황추정 및 지속여부 판단

- 지자체 예산지원 요청, 관련부처 예산확보·지원에 대한 범정부적 기획조정기능 강화 필요
 - 총리실 주관, 가뭄대책회의 개최 등 총리실에서 중대본 역할을 일부 수행
 - ⇒ 중대본부회의를 활성화하여 범정부적 가뭄대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가뭄판단지수 등 예보분야(기상청)】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가뭄판단지수는 강수상황만을 고려한 값으로 토양수분함량, 댐·저수지 저수율, 하천 취수량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음
- 실제적으로 경기·충남·전북 일부지역에서만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있었지만 기상청 가뭄지수는 전국을 심각한 가뭄지역으로 표시
 - 언론에서도 기상청 가뭄지수 지도를 기준으로 과대·과장보도로 국민 불안 조장
 - ⇒ 기상학적 가뭄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가뭄판단지수 개발

【농업용수분야(농식품부, 국토부)】

- 수리안전담(10년 빈도 가뭄에도 영농급수)은 전체면적의 53%에 불과, 향후에도 천수담 등에서 농업용수 부족현상 주기적으로 발생 우려
 - ⇒ 4대강 보 연계 및 저수지 확충사업 등으로 수리안전담화(80%, '30년까지) 조기달성
- 다목적 댐 및 4대강 보의 용수를 농업용 저수지 등에 공급할 수 있는 비상연계시설 미비
 - ⇒ 다목적 댐과 4대강 보 용수를 비상시 농업용 저수지로 연계 공급대책 강구

【생활용수분야(환경부)】

- 생활용수 비상급수지역은 수원이 쉽게 고갈되는 지하수 및 계곡수를 주 수원으로 사용(농어촌 상수도 보급율 56%)하고 있어 단기적 가뭄에 취약
 - ⇒ 농어촌 소규모 상수도 수원 확보 및 지방상수도 보급대책 강구

【가뭄관련 예산집행분야(행안부)】

- 정부에서 가뭄대책비로 6월7일~26일까지 국비 621억원을 지원하여 지방비를 포함한 총 90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7월5일까지 408억원만 집행
 - ⇒ 가뭄대책추진사업을 재해복구사업과 같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 개산계약, 수의계약 등의 관련제도를 지자체 통보

【언론보도 대응분야(중대본)】

- 정부차원의 가뭄극복 노력이 보도되고 있으나, 일부언론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다소 미흡
- ⇒ 정부의 가뭄대책 추진에 대하여 대책회의,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취합,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보령 너울성 파도

■ 피해개요

- 발생일시 : 2008. 5. 4(일) 12:41
- 장 소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 선착장 및 갯바위
- 인명피해 : 36명(사망 9명, 부상 14명, 구조 후 귀가조치 13명)
- 사고내용
 - 이상파랑에 의해 죽도 선착장과 해안 바위지역에서 관광객 및 낚시객 7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으며, 죽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갯바위 지역에서도 2명이 높은 파도에 사망

■ 보령 너울성 파도 발생 원인

- 만조시 해안을 따라 흐르던 강한 조류가 인공적으로 구축된 방파제의 영향을 받아 발생
- 서해안의 강항 조류와 수심이 얇고 움푹 패인 만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이 맞아 떨어져 생긴 기상 현상

■ 너울성 파도 피해 예방 대책

- 해안가 접근 금지 지역이나 갯바위 같이 위험한 지역은 피하고 낚시객은 구명동의를 같은 개인 보호 장구 갖추기

